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

한남대학교 박기련

1. 서론

21세기 미국은 자의반 타의반 세계를 통치하는 일을 떠 맞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불가피하게 2중적인 얼굴을 가진 국가 되었다. 그 하나는 주권국가로서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국가의 모습이다. 주권국가로서 미국은 냉전 이후 차지 한 유일 초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적 유지하려한다. 세계국가로서 미국은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 변모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2중적 모습은 오버랩 되어 나타난다.

안보차원에서는 미국은 이제 유일초강국, 새로운 제국으로써 현상유지 보다는 현상타파를 목표로 한다. 냉전 시 봉쇄전략은 공세적인 개입전략으로 바뀌었으며, 냉전(3차대전)에 이어 테러와의 전쟁(4차대전)을 수행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은 냉전과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 냉전 시 국민을 동원하는 기제가 반공주의였다면 테러와의 전쟁에서 힘을 동원하는 기제는 반 테러리즘이다. 군사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적의 수세적인 격퇴가 아니라 공세적인 격멸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소련이라는 거대하고 지구적인 세력이 퇴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냉전 시 봉쇄정책을 지원하기위한 전방방어 전략은 이제 범지구적인 군사력 투사전략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군사전략 목표와 방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군사변혁을 통하여 범지구적인 통제능력을 가진 군으로 변모되고 있다.

미국의 현재와 21세기 군사전략을 “전략(Stratgy)=목표(End)+수단(Mean)+방법(Way)”의 틀로 냉전 시대와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본문은 2005년도에 발간된 “국가국방전략”¹⁾과 2004년에 발간된 “국가군사전략”²⁾ 문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을 전략=목표+수단+방법의 틀로 구성해 본 것이다.

1) U. S. DOD,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USA*(2005) 참고.

2) U. S. JCS,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USA*(2004) 참고.

미국의 군사전략 비교

Strategy	국가군사전략(NMS)	
	냉전 시대	21 세기
End	•격퇴(defeat)	•격멸(prevail)
Mean	•전구 통제 군사력 •삼각 축(triad)	•범 지구 통제 군사력 •신 삼각 축(new triad)
Way	•전방방어(forward defence)	•전력투사(force projection)

2. 목표

1) 국방전략 목표

현상 타파와 승리를 목표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차원의 전략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본토방어이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본토를 신성불가침의 장소로 여겼다. 비록 소련의 전략핵탄두가 1시간이 내에 도달할 거리에 있었지만 핵무기는 정치적인 무기였다. 일반국민은 핵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다. 미국인들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주는 지리적인 환경과 세계제일주의 환상에 빠져 설마 미국의 본토가 어떻게 되랴하는 생각에 젖어 있었다. 이런 미망에서 미국인들을 깨어나게 한 것은 지구적인 세력이었던 소련 아니라 알카에다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국제적인 테러조직이었다. 9·11테러 공격은 미본토가 안전하지 않구나하는 생각을 미국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주었다. 그 이후 미 본토는 국방 및 군사 차원의 제일의 안보목표가 되었다. 미국의 국방전략은 미국의 안보전략의 중심이 된 미본토를 방어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NDS 2005 내용 요약)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부터 안보	미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자들, 특히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극단적인 적을 포기시키고, 억제하며, 격퇴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
전략적 접근로를 확보하고, 범지구적인 행동의 자유 유지	핵심지역, 통상 교통로, 그리고 지구적인 공통요소(미국의 안보와 재산 증진, 행동의 자유 보장, 우리의 파트너 안보 지원, 국제 경제체제의 통합성 보호 지원) 안보를 통하여 미국과 그의 파트너의 안보, 재산, 행동의 자유 증진.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미국과 원칙과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공동체를 확대할 것이며, 파트너가 그들 자신을 방어하고, 우리의 공통적인 이익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그들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원.
유리한 안보상황 조성	미국의 안보 공약 준수를 통해 그리고 위협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 즉 위협에 대한 방호에 요구되는 단계, 그리고 광범위하고 안전하며 지속적인평화 향상에 대한 타국과 동참을 통해 유리한 국제체제를 유도하는 상황 창출.

2) 군사전략 목표

9·11이후 미국의 군사전략목표는 공세적으로 확대되었다. 냉전시대와 냉전이후 10여 년 간의 과도기에 미국의 군사전략 목표는 적의 도발을 억제하거나 격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9·11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목표는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결정적으로 격멸(prevail)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규모는 작아졌지만, 유동적이고, 범지구적으로 분산되며, 그 실체가 불명확한 미래의 적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미래의 적은 3T 로 요약된다. 즉 미래의 미국과 인류전체에 대한 적은 테러, 기술(특히 대량살상무기), 독재이다. 군사전략목표는 3P(미국 본토 방호: Protect, 분쟁과 기습공격 예방: Prevent, 적을 압도적으로 격파: Prevail)로 표현된다(이하 NMS 2004 내용 요약)

(1) 미국(본토) 방호

근원에 근접하여 위협에 대항	주방어선을 전방으로 추진. 4개 핵심 지역에서 미군 배치 및 운용. 범지구적인 전력투사를 보장하기 위해 GPR 실시. 전개된 군부대가 국제적인 파트너와 다른 미국 정부 기관이 적과 전투, 즉 테러 부대, 테러 동역자, 테러를 비호하는 국가와 교전에 밀접하게 협조.
전략적 접근로 방호	“본토 안보”를 위해 미국으로의 공중, 해상, 지상 및 우주로의 접근로를 방어하고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호. 이를 위해 다국적 파트너와 타 미정부기관의 노력을 통합하고 계속적으로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고, 추적 및 차단 할 수 있게 하는 지속적인 정찰 실시. 통합 방어는 전략적 접근로를 보호하고 미국의 행동의 자유 유지에 필수적 적인 요소.
국내에서 방어	전방방어를 돌파한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능력을 유지. 국내에서 군은 공중 및 미사일 공격, 테러와 기타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 필요시, 군은 군사력 투사능력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반 시설을 방호. 영리한 적에 맞서서 효과적인 방어를 하려면 또한 대량 살상무기/효과와 장차 위협을 신속하게 탐색, 평가, 차단하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기술의 이용이 필요. 비상시 지시에 의거하여 민 방위지원
범 지구 대테러 환경 조성	테러리즘을 일으키는 환경을 감소. 테러리스트를 격파하기 위해서 테러 조직에 국가 지지, 지원 성역을 거부하기 타국의 군과 타 국가가관과 함께 군은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과 파트너의 능력 증강지원. 다른 국가들과의 정보협조는 외국전문가 활용과 중점지역 대비를 용이하게 하고, 거부된 지역에 접근을 가능하므로. 이들 관계들은 미국방호에 긴요한 필수임무 요소이고, 기습공격 예방은 물론이고, 억제와 분쟁에 방에 기여.

(2) 분쟁과 기습 공격 예방

<p>전방추진 대비태세 및 배치</p>	<p>전방 추진주둔군, 특정 임무에 맞춘 순환 및 임시 전개능력을 혼합운용 하여, 국경 안과 밖의 능력을 개선하고, 파트너의 역할을 강화하며, 합동 및 다국적 능력을 확대. 미국안보에 결정적인 핵심지역과 중요 통상 교통로에 전략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전장 공간 전체에서 작전을 지속</p>
<p>안보증진</p>	<p>다국적 파트너 사이에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상호 군사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협력. 안보협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투자비용 이상의 결과를 산출. 안보협력활동은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안보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타 국가 차원의 노력을 보충. 안보협력은 군사적 대응 파트너 간에 운용교리 차이를 해결하고, 중요한 정보 및 통신 연결을 강화하고, 신속 위기대응을 용이하게 함. 능동적인 안보협력으로 동맹국과 군사적전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고, 극단주의를 형성하는 조건을 감소시키며, 미래의 승리를 위한 상황조성.</p>
<p>침략억제</p>	<p>군은 위기를 안정시키거나, 적으로 하여금 그의 행동방안을 재평가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억제방안(FDO)을 행사할 능력 보유. 전쟁 전군사령관은 필요시 적의 신속한 격퇴를 지원하기 위한 조기투입 FDO 능력을 구축. 효과적인 억제에는 미국의 국가이익 방어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는 전략적 통신 계획이 필요. 핵능력은 대량살상무기/효과(WMD/E)와 대규모 재래식무기사용을 포함하여, 위협의 종류에 따라 억제할 군사적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억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광범위한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핵전력을 다양한 종류의 능력으로 구성되는 신 삼각축으로 변혁할 필요. 신삼각 축은 비핵, 능동 및 수동적인 방어, 그리고 이런 전력 뒷받침 할 인프라도 포함. 비 핵 타격 능력, 정보작전, 지휘 및 통제, 정보 및 우주전력이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억제능력에 기여.</p>
<p>기습 공격예방</p>	<p>군은 이제 적 침략에 사후에 대응만을 할 수없게 되었음. 예방적인 임무를 위해서는 지휘관이 적시에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정보의 공유와 교전규칙이 필요. 이런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동시적성과 신속성이 강조. 이 때의 핵심은 이동성 있는 순간적인 표적에 대해 민간하게 그 기회를 포착해내는 것. 이들 임무를 위해서는 인간 및 기술정보 수집수단을 포함하여, 각종 능력을 통합하여 수집된 정보의 정확한 분석과 종합이 필요. 안정화작전과 전략적 억제를 위한 합동작전개념(JOC)은 전쟁전군사령관이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 동안, 사후 전력운용에 핵심적인 방법. 분쟁을 예방하는 데는 질서유지 또는 회복, 평화와 안보 증진 또는 기존 상하의 개선을 위한 안정화 작전 능력요구. 이러한 방안들은 테러를 배양시키고, 테러를 지원하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조성하는 풍토를 완화.</p>

(3) 적을 압도적으로 격파

<p>적 신속 격파</p>	<p>적 신속격파 계획에는 어떤 국가의 수용 불가능한 행동과 정책의 좌절, 신속한 주도권 탈취 및 분쟁의 확대 예방, 적 성역거부 및 공격 능력 또는 목표 거부, 그리고 사후 안정화 작전지원 등을 포함. 합동군은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신속, 기민, 우세한 전투능력을 통합. 다 방면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대에게는 여러 개의 동시적인 작전 실시와 지속에 충분한 전술 및 전략적인 공수능력은 물론이고, 확실한 전략적 접근 보장 필요. 중첩된 작전지역에서 적의 신속한 격퇴를 위해서는 다음 전역을 수행하기 위해 신속한 재구성, 재편성, 재전개 능력 필요(제한적인 군사목표 추구)</p>
<p>결정적인 승리</p>	<p>결정적인 승리 계획에는 어떤 전역을 신속하게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고, 그 결과를 유지하는 방안포함. 주전투작전(MCO) 능력은 전통 그리고/또는 비대칭적인 능력을 운용하는 국가로부터 비 국가에 이르는 전 범주의 위협에 적용.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기위한 전역에는 공중, 지상, 해상, 우주 그리고 정보능력의 통합된 적용으로 적의 군사력을 격파하고, 지시에 의거 적 체제를 제거하는 방안 포함. 이런 전역에는 정규전, 비정규전, 본토안보, 안정화 및 분쟁이후 작전, 대테러 및 안보협력활동 등이 필요(무제한적인 군사 목표 추구).</p>
<p>안정화작전</p>	<p>결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주전투작전, 안전화작전 그리고 미국에 유리한 안정 및 안보상황 조성을 위한 중요한 유관기관 간의 전후작전에 대한 동시화 및 통합필요. 합동군은 주 전투작전에서 안정작전으로 전환하거나, 이 둘을 동시실시. 작전적 차원에서, 전후 군사작전은 외교, 경제, 재정, 치안 및 정보 노력과 종전 목표를 통합. 합동군은 그들의 작전과 활동을 국제적 협력자와 비정부조직과 적절한 수준에서 동시화 협조.</p>

2. 수단

방호, 예방, 격멸의 목표는 군사능력에 대한 정의와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합동군 건설에 바탕을 제공한다. 그들은 특정한 적 보다는 장치 적의 싸우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능력에 기반 한 접근방법을 지원한다. 군은 미국의 군사적 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효과(WMD/E)를 가지고, 고저기술 능력을 통합하며, 재래식 및 비대칭 능력을 병합한 능력을 가진 적을 격파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교활한 적을 격파하는 데는 융통성 있고, 모듈화 및 전개성이 강한, 각군의 능력, 전쟁전구사령관, 기타 다국적 파트너의 정부기관을 통합할 능력이 있는 합동군이 필요하다. 합동군은 새로운 차원의 “태생적인,” 예를 들면 합동구조와 획득 전략에 의해 개념화되고, 설계된 상호작전능력과 체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의 상호운용성은 기술, 교리, 문화적인 장벽도 합동군 사령관이 목표를 달

성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못하게 한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통령 및 국방부에 가용한 대안-물리적 및 비 물리적-의 범주를 극대화시키는 합동군을 설계하는 것이다.

1) 요망되는 합동군의 특성(NDS 2004)

- 완전한 통합-통일된 목적에 초점을 맞춘 기능과 능력
- 해외작전능력-범지구적인 전장에 신속하게 전개, 운용, 지속
- 네트워크화-시간과 목적에서 연결 및 동시화
- 분권화-하급 부대로 통합된 합동군 능력
- 적응성-적절한 능력을 혼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태세
- 의사결정 우세-적 대응보다 한 발 빠른 우세한 정보에 기반을 둔 결심
- 치명성-모든 조건에서 적 그리고/또는 그의 체제 격파

2) 기능과 능력(NMS 2004)

군사력 적용	<p>군사력적용은 임무를 위한효과를 창출해 내는 기동과 교전의 통합적인 사용. 군사력 적용에는 신속하게 주도권을 탈취하고, 적의 방어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치상 및 임시적인 유리점을 얻기 위한 부대이동 포함. 군사력 적용에는 신속한 능력 이동을 위한 장비 전력투사, 그들의 정밀한 적용, 적이 대접근 전략을 운용하고 전력투사 전략에 대한 대항 속에서도 유지 필요. 이런 전력 투사는 작전 전구에 대한 확증된 접근과 전략적 거리로부터 작전적기동을 지원하는 강화된 해외작전능력을 요구. 군사력 적용에서는 압도적인 수의 부대를 만드는 것보다 목표달성에 꼭 필요한 정확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중점. 초국가적인 테러조직을 포함한, 광범위하게 분산된 적에 대한 군사력 적용에서는 개선된 첩보수집과 분석체계가 필요.</p>
군사능력 전개 및 지속	<p>중첩되는 주요전투작전은 전략적 기동성을 가장 중요. 이러한 작전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상수송, 공중수송, 공중재급유 그리고 사전장비 배치 필요. 이들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기동성을 위해서는 또한 물자를 저장, 이동, 분배하기 위한 장비와 전 군수지원 연결망에 실시간에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 기반구축 필요. 지속에는 전력의 장기 활용을 보장하는 전력생산과 관리활동 포함. 전력생산에는 모병, 훈련, 교육 그리고 국방부안에 민간인과 용역부대는 물론이고 현역 및 예비역에 양질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 포함. 전력관리는 고강도 작전 동안 일지라도 준비태세 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부대 가용성, 준비태세 그리고 통합성에 관한 현대화와 변혁 효과를 고려. 전력관리 정책은, 합동군의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대교대 정책을 포함하여, 계속적인 작전요구 평가로부터 발전.</p>

전장 공간보안	공중, 지상, 해상, 우주와 사이버 전장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전할 능력을 가져야 함. 최근의 안보환경의 비선형적 특성은 수많은 다양한 재래식 및 비대칭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다층의 능동 및 수동적인 방법을 요구. 군은 자산과 전체적인 전략적 접근 방법에 근접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탐색 및 차단하는 새로운 능력 요구. 또한 정보체계와 그들의 산물 접근을 보장하고, 적에게는 접근을 거부하는 능력이 필요. 전장공간보안에는 정밀한 부대적용과 전방위작전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한 지속활동 지원하기 위해 정보와 지휘 및 통제 체제 보안 포함. 전장공간보안은 군이 결심우세를 지원하는 모든 출처의 정보와 기타 관련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 전파하는 능력을 보장.
결심우세 달성	결심우세-적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한 결심을 하는 절차-는 속도와 융통성에 기반을 둔 전략을 수행에 핵심요소. 지속적인 정찰, ISR 관리, 동시적인 분석과 즉각적인 분배는 전장 판단을 촉진. 전장 공간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정부기관 및 동맹과 관련 첩보를 공유할 능력요구. 합동군은 정보우세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전,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 군사기만, 심리전과 군사보안을 포함한 정보작전을 실시할 능력 필요. 결심우세 합동군은 지휘관으로 하여금 시간-민감 및 시간-결정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절차를 운용.

3) 전력구상과 규모 지침 : 1-4-2-1 개념과 고려 요소

국가국방전략에서는 본토를 방어하고, 4개 전방 지역에서 역제를 하며, 2개의 중첩된 “신속하게 격퇴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1-4-2-1” 개념의 전력규모를 지시하고 있다. 미국은 여러 개의 소규모 우발사태에 투입된 상황에서도 2개의 중첩된 전역에서 1개의 전역은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구조는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나리오를 위한 임무의 기준을 설정해주고, 전방위군사작전 능력을 포함한다. 그것은 특정 임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전력규모 기획자들과 계획자들은 아래 제시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이하 NDS 2005 요약)

기본적 안보준비 태세수준	전쟁전군사령관은 테러와의 전쟁, 진행 중인 작전 그리고 미군이 개입되어 있거나 완전히 이탈이 쉽지 않는 일상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기본 안보태세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 범위 안에서 임무를 수행. 테러와의 전쟁작전은 장기작전이 될 것이며, 그 강도는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기획가 들은 이들 전역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사령관들은 주어진 기본안보태세 수준 달성에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발전시키고, 감수할 수 있는 위협을 위해 양보 할 수 있는 능력을 식별.
---------------------	--

충분성과 해외주둔	부대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규모의 타당성 그리고 현재목표 전력과 부대/능력 조합의 최적성 평가 필요. 전력모 결정시에는 해외부대 배치, 위치, 분산, 지원 고려. 또한 규모결정 시 전진배치부대 영구주둔, 교대 및 임시주둔을 판단해야하고, 해외 인프라, 전략적 공수와 안전 그리고 유지를 포함한 자산등도 고려.
교전이탈	이 전력기획수립 구조는 미국이 제2의 중첩되는 전역에 직면하여 어떤 사태에서는 교전이탈을 할 것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미국이 의도하지 않거나 또는 신속하게 종결을 할 수 없는 소규모 우발사태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미국이 교전이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계속되는 전후 안보상황을 호전시키려는 안정화 작전이 있을 수도 있음. 이런 상황 하에서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후속분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음. 전쟁전구 사령관은 작전을 할 때, 전역에 결정적인 대부분의 능력이 소규모 우발사태 작전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사태의 가능성을 고려.
확산	부대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소규모 우발사태가 더 큰 노력이 요구되는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있다는 것을 고려. 위기 발생동안 광범위한 군사적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규모 우발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전투전역 수행능력을 보장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전방위군사작전에 투입이 가능한 수준의 전력 규모 필요.
전력생산과 변혁	전력의 건전성은 장기적으로 생산, 지속 그리고 변혁하는 능력에 의존. 전력규모 결정시는 진행중인 훈련활동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전력평가, “연속적으로 진행” 되는 변혁, 전쟁전구 사령관에 제공되는 부대가용성과 능력을 제한하는 기타 계획들을 포함. 수용가능한 수준의 위험 평가는 군이 가장 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결정.

4) 현존전력

재래식전력: 미국은 냉전 이후 10년간 재래식 전력구조에 대하여 4번의 검토가 있었다. 첫 번째는 부시행정부에서 검토한 기반전력(base force)이고, 두 번째는 클린턴 행정부 1기에 검토한 BUR 전력 검토이며, 세 번째는 클린턴 행정부 2기의 1997년 QDR 전력검토이고, 네 번째는 2001 QDR 검토이며, 이제 다섯 번째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³⁾

3) U. 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2001), pp. 17-23.

재래식 전력구조

군별	종류	수
육군	사단	현역 10/ 주 방위군 8
	중 기갑연대/경 기갑연대	1/1
	강화된 독립 여단(주 방위군)	15
해군	항공모함	12
	항모 항공단(현역/ 예비역)	10/1
	상륙 준비단	12
	공격 잠수함	55
	수상 전투함(현역/예비역)	108/8
	전투수송선	33
	해양정찰 및 수색항공단(현역 및 예비역)	4/1
	대잠경 헬기단	2
공군	현역 전투대대	46
	예비역 전투 대대	38
	예비역 방공 대대	4
	폭격기	112
해병대	사단(현역/예비역)	3/1
	비행단(현역/예비역)	3/1
	군수지원단(현역/예비역)	3/1

출처: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2001), p. 22

위의 표는 2001년 현재의 전력구조이다. 2004년 말 미군의 재래식 전력구조도 2001년 전력구조와 대동소이하다. 육군과 해병대, 공군은 동일하나 해군은 잠수함이 55척에서 54척으로 1척이 감소되었고, 수상전투함이 현역108척/예비8척에서 98척/예비9척으로 감축되었다.⁴⁾ 현재전력은 대략 140만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냉전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를 축소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전력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잠재적국 또는 경쟁국과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래에 경쟁국의 도전을 거부하고 현재의 압도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위해 군사력 변혁을 국가전략 의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핵전력: 냉전이후 전략핵감축1단계(START I)에서 핵 감축목표는 미·소 보유 전략핵탄두 21,000 발 중 9,000발이었다. START II에서는 12,000발 중 5,000발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고, START III를 통해 2012년까지는 현재 미소가 각각 보유량의 3500발 가량의 핵탄두를 감축하여 양국 공히 1700-2200발의 전략핵탄두만 운용하기로 하고 협상 중에 있다. 새로운 시대에 전략핵의 억제효과는 감소되었다. 공격에 의한 대량보복, 상호확실 파괴 개념에 의한 공세위주의 핵전략은 테러 집단과 불량국가들에게는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핵의 숫자를 감축하고 전통적인 보복적 억제개념에 추가하여, 거부적 억제 개념의 전략인 미사일 방어를 추가하였고, 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핵장거리 정밀 유도무기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억제력의 중추는 여전히 전략핵이 될 것이다.

4) U. S, DoD, *Annual Report*(2003), p. 3.

STARTII 기준의 미국 전략핵

종류	발사대	미사일 종류	핵탄두
ICBM	미니트맨 : 500	Single	500
SLBM	트라이던트: 18	MIRV: C-5 또는 D-5 24발	1750 이하
BOMBERS	B-52H: 48	ALCM-B와 ACM 12발(최대)	576(+)
	B-2 : 20	B-61 또는 B-83 중력탄 16발(최대)	320
계	586	-	3500이하

출처: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1994-1995), p.15.

94년에 완성된 1차 핵 태세 보고서(NPRI)에서는 표 3과 같은 STARTII 전력을 적정전력으로 보았다. 그것은 미소 각각 3,500발의 전략핵 탄두를 보유하는 것이었다. 현재 미국의 핵전력은 STARTII기준에 맞추어져 있다. STATRIII에서 미국은 최종적으로 ICBM은 폐기하고, SLBM, 전략폭격기만 보유하려하고 있다.

5) 미래전력(변혁군)

미국은 21세기를 대비한 대대적인 군사력 변혁을 추진 중 이다. 핵심개념은 군을 좀 더 경량화, 기동화, 정보화하고, 전 지구적인 리치(reach)를 가진 군을 만들어 전 지구의 분쟁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능력을 보유하자는 것이다. 여단은 96시간 이내, 사단은 120시간 이내 그리고 5개 사단을 30일 이내 전 세계 분쟁지역 어느 곳이든지(미 본토에서 2만 km) 전개 할 수 있는 전략적 전력투사 능력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의 군사력 변혁은 2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주요과업으로 선정하여 국가 전략적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위에서 이미 제시한 대로 국가안보전략 주요과업 8항이 바로 미국 군대의 변혁에 관한 것이다. 둘째, 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9·11을 계기로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강과 실제적인 군 혁신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2006년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클린턴 행정부보다 50% 이상 증강된 5,000억 달러 수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금액은 미국방비 규모 하위 10개국 보다 큰 금액이고, 2위국가인 중국보다는 7-8 배 되는 것이며, 순수하게 군사력 변혁에 사용하는 금액만도 1,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는 나토 회원국 전체의 국방비와 맞먹는 비용이다. 셋째, 미군은 소위 “혁신의 문화”(culture of innovation), 럼스펠드 독트린 등으로 군의 의식개혁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유기적인 합동성 달성, 네트워크전력의 체질화, 군 변혁의 당위성 체질화를 달성하고자한다.

육군은 2032년 까지 현재의 군 구조를 21세기 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극초(Ultra) 기술군인 목표군(Objective Force)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하여 중간단계로 중간 여단인 스트라이커 여단을 편성하여 2003년 현재 2개 여단을 배치중이다. 이들 중간여단은 목표 년도까지의 시간격차를 매우면서 목표 군으로 가는 여단의 가교역할을 한다. 미국은 이런 중간급 여단을 6-8개 보유할 예정이다.⁵⁾ 목표군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편성과 운용개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래군의 주축은 지금의 여단에 해당되는 UA(Unit of Action)와 사단에 해당되는 UE(Unit of Employment)가 될 것이다. 미군은 최종적으로 미 육군을 50여개 UA로 개편하려고 있다. UE는 육군의 최고단위부대가 되어 상설합동군사령부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사단, 군단, 군의 역할을 통합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군의 특징은 극초 기술(Ultra-Tech.)을 가진 네트워크와 전 지구적인 기동성이다. 이들 부대의 핵심 기동부대인 재병협동대대는 탑승전투, 하차전투, 공중돌격 등 제반임무를 수행하고, 소대 급 까지 각종유인 무인 장비로 장비되어 근본적으로는 원격전투를 전제로 지상전투임무를 수행한다, 정보는 체계의 체계로 병사 까지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받고, 가시, 초 가시, 비 가시의 네트워크 화력은 어떠한 표적도 요망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격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5대양을 완전히 장악한 미 해군은 이제 해상작전보다 전 지구적인 전투력 투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군사력 변혁을 추진 중이며, 공군 또한 전 지구적 리치 개발을 목표로 군사력 변혁을 추진 중이다. 이런 군사력 변혁은 크게 3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는 재래식 전력변환이고, 두 번째는 전략군의 재구성이며 세 번째는 우주, 정보 및 첩보전력의 강화다.

첫째, 재래식전력 변혁; 미국은 97년 4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에서 이미 미래에 대비한 전력의 변화 계획을 제시하였다. RMA군 개념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협의 감소에 따라 RMA군에 대한 투자는 지연되었고, 기존의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이나 수명 연장이 강조되었었다. 그러던 차에 9-11 사태로 미국은 미래 전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RMA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다짐하며, RMA보다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군사력 변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과거 10년간의 경험에서 2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예산상의 제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관료주의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 2 가지 장애를 제거하겠다고 하였다. 필요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국방관료들에게는 미래의 위협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혁신적이고 개혁적 사고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변혁은 97년에 시작된 RMA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⁶⁾ 이에 따른 로드 맵을 작성하고, 예산을 배정

5) 2002 미 육군 현대화 계획, 2003 미 육군 변혁 로드 맵(육군 교육사령부 번역자료)

6)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2001년 QDR에서부터 위협관리체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테러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고, 중기적으로 5년 후를 대비하며, 장기적으로 2010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전력과 관리상의 위협, 작전상의 위협, 제도적 위협, 미래 도전의 위협에 균형되게 체계적인 대응하려는 것이다. Annual Report(2003), p. 10 참조

하여 20년 후에 완성될 미래군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변혁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미래군이 수행해야 할 핵심작전 목표를 표 4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⁷⁾

미래군이 수행할 작전목표

- 중요한 작전기지 보호 및 핵·화생무기의 무력화
- 접근을 거부하는 환경에 대한 전투력 투사 및 유지
- 적의 피난처 거부
- 정보기술의 수단화
- 정보체계의 보호와 정보작전의 수행
- 우주능력의 신장

출처: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2001), pp. 42-45.

군사력변혁에서 작전수행 측면에서 핵심은 합동작전능력 향상이다. 왜냐하면 미래전은 유기적 합동작전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2 연례국방보고서에서는 합동작전 군 변혁의 3가지 주점을 제시하고 있다.⁸⁾ 그것은 첫째, 합동작전 및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 합동 및 다국적 지휘통제를 융통성 있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각 군의 작전수행 차원까지 통합하여 구축하며, 셋째, 상비합동대응군 본부와 상비합동 대응 군을 각 지역 전쟁 전구사령부에 설치하는 방안이다. 시안(試案)에 대한 실험이 2002년 7월 합동 전력사령부에 의해 실시되었다. 상비합동대응군 본부는 적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합동군 지휘조직이다.

둘째, 전략군의 재편성: 냉전이 종식 후 10년이 경과된 현재 기습과 불확실성이 새로운 안보환경의 본질이 되었다.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핵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부시 행정부에서 실시되었다. 9·11 사태 이후 주요 위협이 주 전투 보다는 3T(Terrorism, Tyrant, Technology)의 소규모 지역분쟁으로 예측됨에 따라 2차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기습과 불확실성에 기반을 둔 테러 등 소규모우발 사태에 대한 억제에 주안을 두었다.⁹⁾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복의 위협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핵무기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었다. 테러 및 불량국가들에게 보복의 위협은 먹혀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 가능성이 큰 재래식 장거리 유도 미사일도 억제에 필요하게 되었다.¹⁰⁾ 또한 개념적인 융통성을 위해 거부적 억제가 가능한 방어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바로 미사일 방어였다. 즉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공격과 방어의 혼합이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미국의 핵

7) QDR 2001, pp. 42-46.

8) QDR(2001), pp. 4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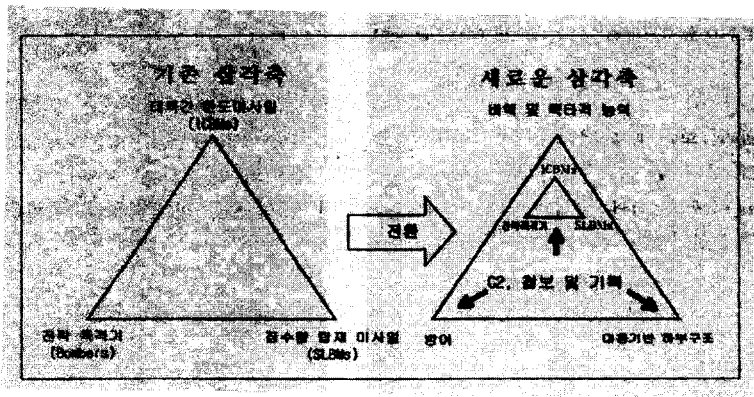
9) Guthe Kurt, *The Nuclear Posture Review: How is the "New Triad" Now ?*,(Washington D.C.: SCBA, 2002), p. 7.

10) Guthe(2002), p. 7. 새로운 삼각 축에서는 확산 통제나 미국에 유리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것보다는 사용에 중점을 둔다. 이것을 첨단 비 핵 재래식전력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태세는 1)전통적인 ICBM, SLBM, 전략핵폭격기로 구성되는 삼각 축에 재래식전력을 추가하여 1개축, 미사일 방어 전력이 1개축, 이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를 또 다른 1개축을 추가하여 새로운 삼각 축을 형성하고 2)안보환경변화와 기술력의 발전이라는 변화에 대응 유연성 있는 전략핵 감축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이다.¹¹⁾

새로운 삼각 축의 3개 구성부분은 다음과 같다.¹²⁾ 첫째, 핵 및 비핵전력으로 구성된 타격능력 및 관련된 지휘 및 통제, 둘째, 공중방어 및 MD를 위한 지휘통제를 포함하는 적극적 방어와 소극적 방어 셋째, 공세전력과 방어체계의 발전, 구성 및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및 하부구조다.

신 삼각 축



출처: Annual Report(2001), p. 56,

새로운 삼각 축은 2012년을 목표로 기존의 능력을 보강하고 새로운 능력은 개발 및 획득하여 형성하려하고 있다. 새로운 삼각 축에 필요한 전력개발 분야는 ① 첨단비핵타격능력, ② MD, ③ 지휘 및 통제, ④ 첩보분야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을 목표연도로 볼 때 핵전력은 충분하나 성능개량이 필요하고, 첨단 비핵타격능력은 최신형이나 작전효율성 개량이 필요하며, MD는 개발단계로 전략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하부구조에도 개선과 보강의 여지가 있다.¹³⁾ 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삼각 축 체제 완성은 향후 10년간 점진적인 방법으로 1개축을 구성하는 전통적인 전략핵 감축과 새로운 2개축 개발을 통하여 현재의 위협에 대처하고, 미래소요에 대응하려는 균형 있는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핵 감축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¹⁴⁾ 1)감축 일정상의 진정사항을 검토하고 2)향후 1-3년 사이 국가이익이 당면할 위험과 이에 대처

11) Annual Report(2002), pp. 56-57.
 12) Annual Report(2002), pp. 57-58.
 13) Annual Report(2002), p. 58.
 14) Annual Report(2002), pp. 59-60.

할 핵전력의 역할을 평가하며 3) 새로운 삼각 축 발전과정과 비핵전력, 방어, 첩보, 지휘 및 통제,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방어하부구조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셋째, 우주와 정보 및 첩보 영역에 대한 투자: 우주공간은 전쟁을 5차원으로 확대시켰다. 미국은 새로운 전장공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여 경쟁국을 단념시킨다는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주·정보·첩보(SSI: Spac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능력을 군사력 변혁의 6대 작전목표의 하나로 하여 미래위협에 대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SSI 능력의 기여도를 확인한 바 있다. SSI는 작전속도의 가속화 시켜주고, 작전주기를 감소시켜 주었다.

국방부는 SSI 영역에 대하여 다음사항에 중점을 두고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¹⁵⁾ 1)우주체계의 능력, 접근성 및 생존성을 강화하고 2)안전하면서도, 고성능의 신뢰할 만한 전지구차원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3)전 지구 상황을 인지하고,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정찰 내역을 고도의 성능을 지닌 네트워크에 제공하며 4)적대세력의 유사 능력을 거부하면서 우주·정보·첩보 체계를 한층 더 강력하고 안전한 체계가 되게끔 보장한다.

3. 방법

1) 전방위우세(FSD) 작전 구상

21세기 미국의 군사작전 개념은 전방위군사작전에서 어떤 상황도 통제할 수 있고, 어떤 적도 격파할 수 있는 전방위 우세(FSD) 개념이다. 이런 개념 하에 미군은 범지구적이 군사 통제능력을 바탕으로 본토에 주력을 집결 보유하고, 해외에 20만 내 외의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여, 이를 발판으로 전 지구적인 전력투사를 실시한다. “전방위 우세 합동군은 범지구적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동시적으로 신속하게 작전하는 능력 보유를 보장하고; 적의 방안을 강제적으로 폐쇄시키며; 필요시, 적을 결정적으로 격파하는데 필요한 요망되는 효과를 만들어 내게 한다.”

각 군과 전쟁전구 사령관은 군사적 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미군은 본토방호와 테러와의 전쟁승리를 위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국제적 노력에 개입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 우세를 유지해야한다. 아래에 제시한 전방위우세 달성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합동전투능력을 강화하고, 변혁을 지원하는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다.

편성적응성. 적응력 있는 편성을 위해서는 편성이 좀 더 모듈화 되어야하고, 특정임무에 신속하게 합동능력을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듈화 전력은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시키는 각 군의 핵심 구성 능력이다. 편성 적응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능력의 혼합을 지속하기 위해 현역과 예비역의 균형을 꾀하는 방안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비합동군사령부(SJFHQ) 창설은 각 전쟁전구 사령부

15) Annual Report(2002), pp. 61-62.

안에 있는 합동군사령부(JTF)에 핵심적인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상비합동군사령부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우발사태와 위기에 대응하여 신속한 각 군 능력의 포괄적 운용을 용이하게 하게 할 것이다. 선택적으로, 보충, 훈련, 장비된 이들 상비합동군사령부는 어떤 우발사태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합동국가훈련능력은 합동군으로 하여금 전술 및 작전적 차원에서 전쟁 경험을 훈련 및 습득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합동 군에게 실제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전장판단기능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들 새로운 훈련능력은 합동군으로 하여금 비대칭적인 도전과 다양한 위협에 더 준비하게 할 것이다.

유관기관 통합과 정보공유. 5개 지역과 2개 범지구 전쟁사령관에서 대테러 합동유관기관협조단(JIACG) 운용은 유관기관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JIACG는 유관기관들 간에 정보공유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지속적인 실험절차를 통하여 전쟁전구사령관이 직면하는 수많은 초국가적 이슈들에 대비하는 다국적 전문가들 돕는 “전방위” JIACG를 개발 및 배치하려는 군의 목표를 지원 한다. 단기적으로 군은 회상으로 동시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부 표준 동시작업 도구 세트와 JIACG 사이에 정보공유와 상황판단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유관기관 통합은 공공업무와 공공외교 요소를 가진 전략적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군사 첩보작전에 추가하여, 이 전략적 통신 계획은 주제와 전문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성공을 강조하며, 정확하게 미국작전에 대한내부 보고를 확인하거나 거부한다. 전쟁전구 사령관은 이런 전략적 통신 전역 개발, 실시, 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범지구정보망. 국방부는 더욱 더 완전하게 상호운용이 가능하고, 유관기관 지원범위를 가지는 범지구정보망을 개발 중이다. 범지구 정보망은 정보와 결심우세에 가장 중요한 단일 능력이 될 가능성을 가진다. 범지구정보망은 정보공유, 효과적인 상승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동시적이고 중첩되는 작전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그것은 일종의 범지구적으로 상호 연결된, 끝에서 끝까지의 정보능력의 집합으로, 연합된 절차이고, 국방정책 담당자, 전투원 그리고 지원 인원에게 소요되는 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 전파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이다. 다른 계획들에 작전정량분석(ONA) 개념, 다국적정보공유(MNIS), 변형변화패키지(TCP) 그리고 몇 가지 첨단기술시연(ACTDs)이 포함되는 전장판단 변혁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각각 결심수립을 위한 정보와 지식; 기술, 정책, 그리고 편성관련 이슈; 그리고 혁신능력에 대비한다. 이 활동들은 연합국 파트너들 사이에 정보공유를 개선에 관련된 진행 중인 노력들 이다.

정보전역 계획수립. 역동적인 환경에서 결심우세 달성을 위해서는 국방부, 비국방부 기관, 준법단속과 다국적 파트너 등을 포함하는 모든 출처의 정보와 첩보의 동시화와 통합이 요구된다. 정보 지원은 또한 모든 범주의 분쟁을 포괄하고, 그리고 매일 이루어지는 안보협력과 테러와의 전쟁요구로부터 나오는 모든 군사작전에 걸쳐 지속적이어야 하고; 적대이전, 위기, 그리고 주 전투작전; 전후 안정화 작전을 지원해야 한다. 분쟁예방을 지원하고, 기습공격을 완화시키며, 정보를 전투요구에

즉각 응하도록 준비하는 정보작전전략은 이 지원의 핵심요소다. 정보 전역계획은 모든 출처에 대한 정보 분석과 생산, 다방면-수집, 처리훈련, 그리고 지원 첩보구조를 포함하는 모든 단계의 작전과 전역에 요구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정하여 이들 전략을 이행한다. 이런 계획은 또한 국가적 및 국제적인 안보의 약화 없이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과 및 공유하게 한다. 모든 정보작전 측면에 대한 대비로, 이 계획은 국방부와 기타 광범위한 정보 집단의 정보능력을 결심우세로 이끄는 결정적인 첩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해외주둔 태세 강화. 통합된 범지구 배치와 기지설치 전략은 미국의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전투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틀을 제공한다. 이런 전략은 영구 및 교대주둔, 사전물자배치, 이런 목표를 지원하는 범지구 자원지원과 능력집중 제공 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배치조정은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한편, 테러와의 전쟁승리를 지원해야 한다. 미국 해외 주둔과 범지구적인 군수지원 망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부대가 지역 및 범지구적인 우발사태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하는 해외작전 접근방법을 운용하는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 그들은 위기 발생시 요구되는 시간과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계측적인”(scalable) 지원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 미군 해외주둔과 태세 변경은 군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작전을 가능하게하며, 과거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군 해외 주둔은 또한 핵심지역의 상황을 개선하고, 분쟁예방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합된 범지구 해외주둔과 기지설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돕는 한편, 기존의 동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동맹과 연합강화는 적대적또는 비우호적인 체제에 압력을 가 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유리한 세력균형을 조성을 돕는다. 다국적 파트너십은 합동훈련, 실험과 변혁을 통해서 연합을 형성하는 기회를 확장한다. 통합된 범지구적 배치와 기지설치 전략은 지속적인 평화 유지 상황을 부여하면서 침략을 억제하고, 분쟁확산을 통제하는 등의 분쟁이전의 방안들의 선택범위를 확장한다.

합동 지휘자 개발. 우리는 전사들 즉 고급 및 초급 장교 그리고 준사관들을 위해 좀더 양호한 합동경험,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합동전문 군사교육을 계속적으로 개선한다. 고급장교들 차원에서는, 수정된 기본교육과정에서는 고급장교 들이 합동군과 기타 합동작전을 이끄는 데에 대비한 합동성에 대한 강조가 증가될 것이다. 초급장교와 준사관들에게는, 합동교육과 훈련을 경력 초기에 통합하여 미래 지휘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술작전과 유관기관및 다국적 구성요소와 통합하게 할 것이다.

2) 합동작전개념(JOC) 적용의 전략적 원칙

미국 군사전략 원칙은 복합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능력을 구비하는 한편, 상황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총체적 대응을 위해 기존 군사영역을 넘어선 분야까지로 군의 역할

을 확대하였다. 국가군사 전략에서는 전략적 원칙에 대하여 " 전략적 민첩성, 통합성과 결정성은 미군으로 하여금 떨어진 상태의 중복되는 분쟁에서 신속하게 전투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군이 전방위작전을 운용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편조, 합동작전 개념의 발전을 이끈다." 고 하였다.(이하 NMS 2004 요약)

민첩성: 이것은 군이 불확실성이라는 주 안보환경 성격에 대처하기 위한 준칙이다. 민첩성은 지리적으로 분리되고, 환경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신속하게 역량을 전개, 운용, 지속, 재배치하는 능력이다. 사령관이 작전을 지도할 때, 기습의 효과와 전력을 한 형태 또는 한 단계 작전으로 로부터 다른 것으로 신속히 전환하거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여러 단계를 수행해야 할 해야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첩성은, 기획 원칙으로써, 지휘관에게 닥쳐올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유하면서 동시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민첩성은 전방위작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군이 미국의 이익을 방호하기위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

결정성: 결정성은 전쟁 전구 사령관으로 하여금 적을 압도하게하고, 상황을 통제하며, 소정의 성과를 얻게 한다. 결정성은 구체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목표를 완수하도록 합동능력을 편조하여 묶는 것을 필요 한다. 결정성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의 전개 보다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운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면, 부대를 집중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효과를 집중하도록 군의 역량을 변혁하는 것이 결정성 달성의 핵심이다. 결정적 성과에 집중함으로써, 전쟁전구 사령관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생산 및 결정해야 하는 효과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통합성: 사령관은 군사 활동의 노력에 중심과 통일을 제공하기 위해 타 국가 및 국제적 힘의 적용과 효과적으로 통합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통합은 각 군, 타 국가 기관들, 상업적인 부분, 비정부기구 그리고 해외 파트너와 융합 및 동시화에 집중된다. 통합은 힘의 일률적인 사용이 아니라 노력의 통일보장과 파트너의 참여를 최대화 하는 것을 추구한다. 안보협력과 기타 개입활동을 통한 다국적 파트너 능력 향상은 분쟁을 예방하고 침략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전쟁전구 사령관의 계획이 멀리 이격되고, 중복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군의 능력을 지원한다.

민첩성, 결정성, 그리고 통합성은 동시적인 작전, 압도적인 힘의 적용과 다른 국력요소와 미군사력의 융합을 지원한다. 이 원칙들은, 미국 사령관들로 하여금 적의 약점을 전과 확대할 수 있도록 속도를 강조하고, 신속한 주도권 확보와 최종상태 달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광범위하게 분산된 위치로부터 적의 중심에 효과를 집중하도록 능력을 모으는 개념을 지원한다. 우리의 전략원칙은 장기 국가 목적과 목표에 기여하도록 방호, 예방, 압도하는 군사력적용을 지원한다.

4. 결론 : 21세기 미 군사 전략의 특성

첫째, 공세적·예방적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미국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을 ‘전통적 도전(traditional challenge)’, ‘비정규 도전(irregular challenge)’, ‘재앙적 도전(catastrophic challenge)’, ‘방해적 도전(disruptive challenge)’으로 분류¹⁶⁾하고 현 시점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고 있는 대상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가 결합된 ‘재앙적 도전’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중국, 이란, 북한 등과 같이 기술력 축적과 활용을 통해 미국이 특정지역이나 소지역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우월함을 상쇄시키는 ‘방해적 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전략의 핵심, 나아가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에는 ‘재앙적 도전’이 자리 잡고 있고 2 차적으로 ‘방해적 도전’이 놓여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상당한 수준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전 지구를 총체적인 전역으로 하는 전략으로 확장이다. 4대 국방정책 목표에서 “안전한 거리에서 위협에 대응” 하겠다는 것은 본토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위협이 미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사전에 대응하여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필요시에는 해당국과의 협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유지에 부합하는 안보상황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연대를 형성” 해 나가겠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해 나가기 위해 동맹관계 재편을 포함한 안보 구도의 재편을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리한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안보 상황을 구축” 하고, “동맹 및 협력관계 강화” 를 도모 한다.

셋째, 적극적인 적 격파를 도모하는 군사전략으로의 변화이다. 미군은 군사전략 목표는 전술한바와 같이 3P(protect, prevent and prevail)이다. ¹⁷⁾ 이것은 미군의 압도적인 능력을 반영한 것이다. 미군은 범지구적인 전장에서의 기민한 대응을 위하여 단기전과 결정적 승리를 추구 하는 것이다.

넷째, 미국은 미군의 범지구적인 통제력을 이용하여 공역지휘(Command of the Commons)로 제국(Empire)을 유지하려 한다. 미군은 범지구적인 통제력을 가진 군사력을 이용하여 공해, 공역, 우주공간,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였다. 이런 군사적인 힘이 바로 제국 경영의 물리력이다.

16) U. S. DOD,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USA*(2005), pp. 2-3.

17) U. S. JCS,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USA*(2004),pp. 9-12.

참 고 서 지

육군교육사령부 번역자료. 미 육군 현대화 계획. 2002.

육군교육사령부 번역자료. 미 육군 변혁 로드 맵. 2003.

Kurt, Guthe. *The Nuclear Posture Review: How is the "New Triad" Now?*.
Washington D.C.: SCBA, 2002.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4-1995.

U.S. DoD, *Annual Report*. 2002. 2003.

U.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01. 2006.

U.S. Do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USA*. 2005.

U.S. JCS,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USA*. 2004.